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적극 검토

등교개학과 동시 고려...학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지역·학교별 동일 수준 원격교육 가능 여부 등 종합적 판단

교육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원격교육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통해 개학한다는 것이 지역과 학교별로 동일한 수준의 원격교육이 가능할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이런주와 다음주 원격교육 시범학교 운영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등교 개

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학생이나 학생·교직원 감염돼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 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고, 학부 모듈이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온라인 개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생중계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들으며 질문하는 풍경을 상상하지만 현재 일선 학교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과제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고, 토론형은 e학습터 등 온라인 공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간쌍방향형이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으로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형이나 강의를 정식 수업으로 인정해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로 인정해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언급하며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이런 현장의 혼란 때문이다. 운영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최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담길 예정이다.

전국 사·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당국은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와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사·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일자리 위기...모든 中企에 휴업수당 90% 지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예산 5000억으로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원 대진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

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김원 대진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

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해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해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신천지 교인 12명 콜롬비아서 입국

거주지·생활격리시설에 격리

콜롬비아에서 입국한 광주·전남 거주 신천지 교인 12명이 거주지와 생활격리시설에 각각 격리 조치됐다.

25일 광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전남 거주 신천지 교인 12명이 콜롬비아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남미 입국자의 경우 공항 검역소의 검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은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신천지 광주교회 측에서 제공한 전용 버스를 타고 광주·전남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각각 소관 지자체 보건소 등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에 들어갔다.

광주에 거주하는 9명 가운데 5명은 자가 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생활 치료시설인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에 입소했다.

나머지 광주 거주자 4명과 전남 거주자 3명은 각각 자가격리 조치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미 쪽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도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자가·시설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의 유입 확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G20 화상 정상회의 참석...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오늘 밤 9시, 방역·보건 활동 설명...트럼프 의료장비 지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밤 9시에 열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한다.

정외대 유재관 부대변인은 24일 문 대통령이 G20 정상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독자적인 자기진단 앱 개발 및 사행·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의료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10시부터 23분간 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한국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3일

(현지시간) 기준 4만명이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상황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화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 간 '3각 소통'이 재개된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초 친서 교환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미 정상의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통화 및 친서 교환이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소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로 우울...심리지원단에 상담하세요”

광주시, 24시간 운영

일상생활이 제한된 코로나19 격리자와 시민들의 '심리 방역'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와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한 코로나19 심리지원단(반)의 상담 건수는 24일까지 1주일간 542건에 달한다.

지원단은 문자 메시지, 리플렛 등을 통해 558건 정보 제공 활동도 했다. 자가 격리자들은 "가족에게 미안하다", "격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격리 해제 후에도 나를 멀리할 것 같다"는 등 고민을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의 제약에 답답하고 불편하다며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

들도 다수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생기는 분노, 스트레스 등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정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부정적 감정이 지속해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심리지원단에서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24시간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코로나19 심리지원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의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입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쓰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